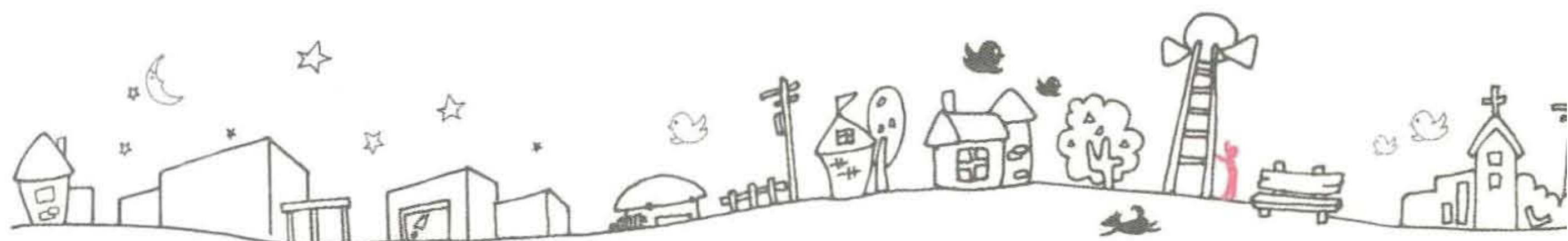


이응노마을, ‘별의별’ 두 번째 이야기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
[2016. 11. 12. ~ 2016. 11. 18]



2016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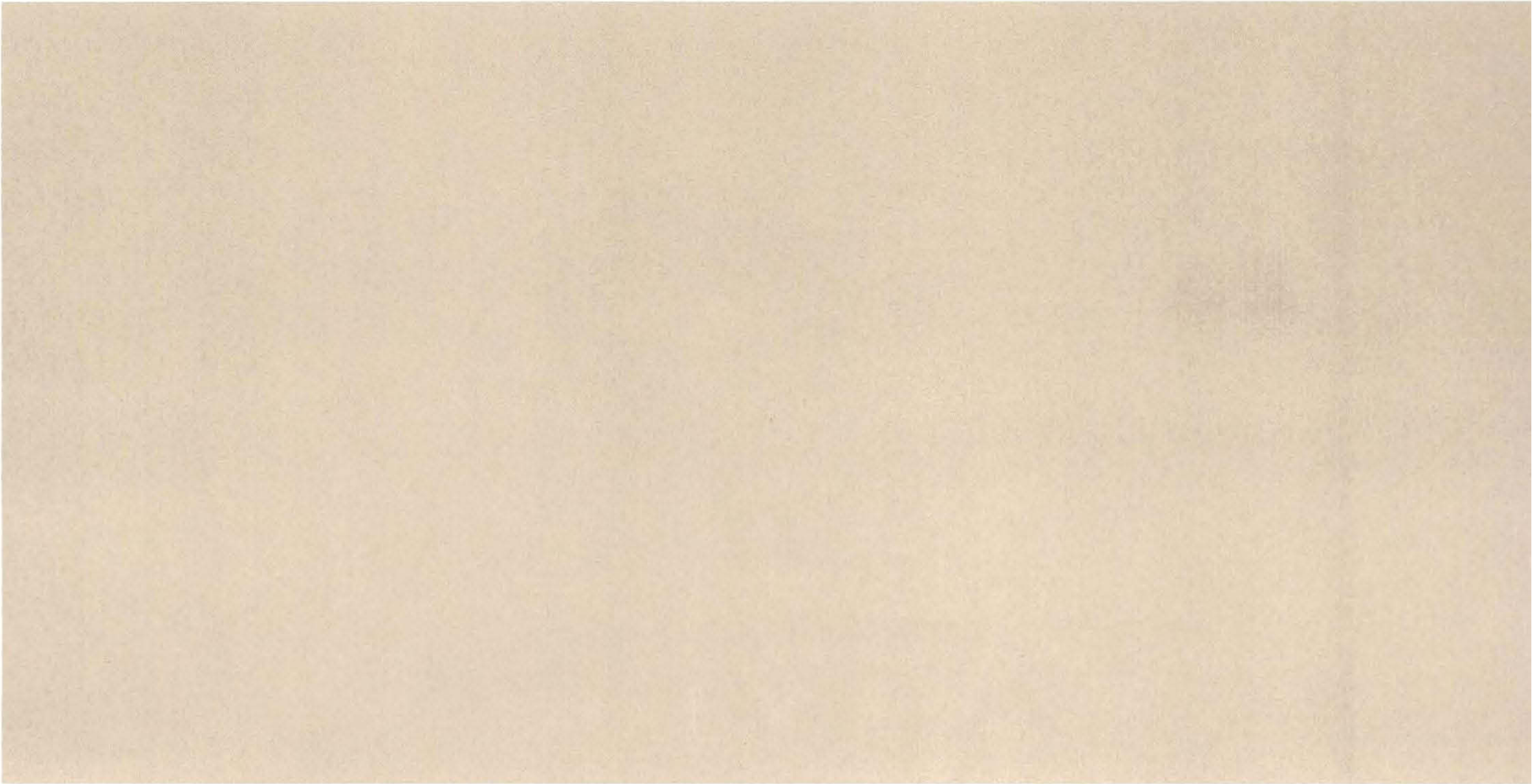
이응노마을
LEEUNONGVILLAGE

이응노마을, ‘별의별’ 두 번째 이야기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

[2016.11.12.~2016.11.18]





이응노마을 '별의별' 두 번째 이야기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

들어가는 말	05
최민갑 · 김상오 부부	07
윤소수 · 이옥선 부부	17
신영학 · 김영순 부부	27
한충식 · 김봉자 부부	37
정동규 · 장순희 부부	47



2016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초대합니다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

2016. 11. 12(토) 11:00

개막프로그램

1부 (11:00~11:40)

마을회관 “별의별 공간” 둘러보기
마을도서관(북카페) 차와 담소
기념관 이동

2부 (11:40~12:40)

기념관 특별전 관람
점심식사_이응노생가마당

3부 (12:40~14:00)

마을 '풍물패' 공연
마을다큐 영상 관람
안희당음악극 공연

이응노마을 상징조형물

‘중치는 사람’은 마을의 중심이 사람이며 모두가 주인이자 변화의 리더라는 상징을 담는다.
〈중치는 사람〉,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FRP), 우레탄도색, 60*60*220cm, 2015, 홍상식



‘이응노마을’ 뒤에서 묵묵히 지지하는 주민어르신들로부터 듣는 마을의 역사와 일상의 삶 담아

문화특화지역 예술마을 조성사업 2016년 ‘이응노마을’ 사업의 1년간 성과를 보여주는 홍천마을 주민어르신 다섯쌍 부부의 인터뷰,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이번 어르신 인터뷰, 다큐멘터리는 홍천 1, 2차 마을에 살고 있는 최민갑·김상오 부부를 시작으로 윤소수·이옥선, 신영학·김영순, 한충식·김봉자, 정동규·장순희 부부에 이르기까지, 다섯쌍의 어르신 부부를 선정, 사전 인터뷰와 영상 촬영, 도록 제작 등으로 진행하였다.

어르신 인터뷰, 다큐멘터리는 내포문화미디어센터(대표 노보성)의 영상 인터뷰 촬영과 편집 등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 완료했으며, 이응노마을신문 전상진 편집인과 김두홍 팀장이 어르신 다섯쌍 부부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 및 영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영상과 책자로 제작된 주민어르신 다섯쌍 부부의 인터뷰, 다큐멘터리는 지난해 〈주민 리더 인터뷰, 다큐멘터리〉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되는 홍천마을 어르신들의 일상을 담은 기록이다.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 시리즈는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별(얼굴·초상^{肖像}) 하나가 아니라 광대무변한 우주공간에 수없이 많은 별(군상^{群像})들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 시리즈는 홍천마을 주민 가운데 마을의 역사와 함께 한 어르신들과 이응노마을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민 리더를 중심으로, 부부 한쌍의 과거와 현재의 일상 모습을 차분히 담아냈다.

이번에 제작된 주민어르신 다섯쌍 부부의 인터뷰, 다큐멘터리는 ‘이응노마을’ 예술마을 조성사업을 뒤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있는 마을어르신들로부터 마을의 역사와 일상적 삶을 들여보는 소중한 기록이며, 이 기록을 영상과 도록에 담아 ‘이응노마을’의 소중한 역사로 남기게 된다.

끝으로, 주민어르신 다섯쌍 부부의 인터뷰, 다큐멘터리 영상과 도록 제작에 애쓴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모영선(이응노마을 총괄감독·홍성생태학교 나무 이사장)

최민갑 · 김상오 부부



남에게 폐 끼치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홍천문화마을 1길 124

1942년 3월 29일(양력)
최민갑 씨 출생

1950년 1월 4일(음력)
김상오 씨 출생

1969년 11월 27일(음력)
결혼

1970년 8월 13일(음력)
딸 최명희 씨 출생

1973년 4월 14일(음력)
아들 최원기 씨 출생

1976년 10월 11일(음력)
아들 최흥기 씨 출생

1992년 4월 4일(양력)
딸 최명희 씨 결혼

2002년
최민갑 씨 회갑

2005년 5월 5일(양력)
아들 최원기 씨 결혼

아들 최흥기 씨 결혼

2009년
김상오 씨 회갑

2011년
최민갑 씨 칠순



결혼 사진

평범, 그 흔하지 않게, “평범하게 살다보면 좋은 일 있지”

최민갑 · 김상오 부부 ... “남에게 꽤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전부여”

우리가 최민갑 · 김상오 부부를 사전 인터뷰 하고자 찾아 갔을 때 최민갑(75) 씨 덩그러니 혼자만 집에 있었다. 무더운 날씨 탓인지 찬 물이라도 내놓을 줄 알았는데, 물 한 잔 없이 곧바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해야만 했다.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지 뭐, 그저 그럭저럭 순탄하고 평범하게 살았어.”
“뭐 할 말이 딱히 있어야지, 허허, 집사람은 일 나가고 없고, 허허, 그것 참!”

최 씨는 “지금은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말한다. 70여 년 인생을 통째로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농사지을 땅도 이제 아예 없으니, 그저 쉬고 놀 수밖에 없단다. 노는 것도 습관이 된 탓인지 놀면서 재미도 찾고, 그럭저럭 지낼 만하다고 너스레를 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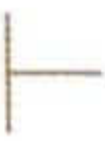
최민갑 · 김상오 부부를 영상 인터뷰하고자 두 번째 찾아 갔을 때에는, 아내인 김상오(68) 씨를 만날 수 있었고, 내외는 선뜻 우리에게 오미자차를 내놓았다. 여전히 심드렁한 대답이었지만, 평범한 삶의 순간순간을 완곡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평범하지만, 결코 삶이 평탄하거나 녹록지 않고 힘든 나날들이었기에 내외는 살아온 날들이 그저 ‘평범’하다며, 애써 덤덤한지도 모르겠다.





1. 결혼식
2. 19살때 (시집오기 전)





- 1. 계룡산에서
- 2. 자식들과 친척들
- 3. 아버지 영정
- 4. 어머니 영정



어릴 적 많이 배우지 못하고, 농사짓는 걸 천직으로 알며 살아와

최민갑 씨의 원적은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이다. 최 씨가 이곳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홍성과의 인연은 원적인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최 씨는 지금의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 어릴 적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오직 농사만을 천직으로 알며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다.

최 씨는 18살 때 큰 삼촌, 둘째 삼촌 등 친척들이 모여 사는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로 이사를 왔다. 여기 홍천마을에서 아예 친척들과 살림을 합쳤다. 이때부터 평생의 고된 농사일은 시작되었다. “쌀, 보리, 콩, 고구마 같은 논농사, 밭농사 짓고 어린 나이에든 지게지고 산등성이를 넘나든 일이 어제 일처럼 휼하다”고 최 씨는 그때를 회상한다.

최 씨의 논밭은 지금의 홍천 1차 마을에서 홍성읍으로 나가는 도로변에 있었다. 농사 잘 짓고 있었던 내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다. 농사짓고 있던 논밭이 ‘도로에 편입돼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이래저래 짓던 농사를 접고, 논밭이 있던 근처의 집도 팔고,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이 생기면서 1차 마을로 들어왔다. 그나저나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것. 그래도 최 씨는 지금은 놀고 쉬며 지내는 그런 일상이 아주 편하고 좋단다.

결혼 후 부모 봉양, 남편 섬기고 자녀 잘 키워 … 요즘 일 하는 재미 ‘쏠쏠’

김상오 씨는 지금의 서산시 해미읍 대곡리에 태어났다. 김 씨 역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농사만 짓고 살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연애도 한 번 해보지 못하고, 꽃다운 청춘에 일곱 살 차이가 나는 최 씨와 결혼했다. 월남전에서 살아 돌아온 최 씨와는 중매로 만났다. 그때 결혼 풍속이 대체로, 중매결혼이 많았으니까. 얼굴도 성격도 미처 따져보지 못하고 평생을 최 씨의 아내로 살았다.

김 씨는 결혼해서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남편 잘 섬기며, 자녀들 잘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았다. 시아버지가 평소 혈압이 높았는데, 이웃 제사 집에 가서 음식을 잘못 먹고 사례가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시어머니가 뇌종양으로 병원 근처도 못 가고 세상을 떠난 게 가슴 한 켠이 아직도 먹먹하다.

요즘 김 씨는 일하면서 사는 게 재미지다. “몇 년 전부터 일자리가 생겨 출퇴근을 하고, 일하면서 동료들과 수다도 떠니 살맛난다”고 말한다. 아픈 손가락인 자식도 있지만, 어차피 그것조차 자식들의 삶이요, 자식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니 무어라 혼내거나 원망 할 수도 없다.





군시절 전우와(월남파병)

죽음의 경계 넘나들면서,
살아있음에 대해 감사하니 이 또한 무척이나 ‘평범’ 해

최민갑·김상오 부부의 자녀들은 다들 무탈하게 자라 각자 짝을 맺고, 손주들도 예쁘게 자랐다. 큰 딸 최명희(47) 씨는 학교급식사·사회복지사로 자리 잡았고, 사위는 사업가로 자리를 잡았다. 큰 아들 최원기(44) 씨는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승진 소식도 있으니, 더 무얼 바라겠는가. 막내아들 최흥기(41) 씨도 홍성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업을 하고 있어 참으로 든든하다.

최 씨의 삶은 평범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평범한 삶을 살진 않았다. 월남의 전쟁터에서 죽다 살아왔으니, 어찌 그 삶이 평범하다고만 할 수 있는가. 백마부대 군인으로 파병한 최 씨는 동료들의 주검을 보면서 14개월을 전쟁터에서 버텼다. 최 씨는 “동료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두 이제 이국땅에서 고향땅도 밟지 못하고 죽는구나’를 하루에도 수십 번 되뇌었다”며 “동료들에게는 미안하고 죄스럽지만 이렇게 살아 돌아와 감사하다”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달고 살아간다.

결코 평범하지 않게 ‘남에게 폐 끼치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지키며 살아와

최민갑·김상오 부부는 ‘남에게 폐 끼치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는 말을 굳이 가훈^{家訓}이라고 내걸진 않지만,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있다. 최 씨는 “어찌됐던지 평탄하게 살았으면 그만이지, 뭐 별 일 있나” 하면서 ‘허허’ 웃고, 김 씨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전부”라면서 수줍은 미소를 머금는다.

최민갑 씨, “젊은 사람들이 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마을이 잘나가는 마을”

최 씨는 마을 일과 지금 진행되는 마을 사업에 대해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마을이 잘 나가는 마을”이라며 “이응노마을 사업이 꼭 성공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애써 ‘평범’ 하게 받아들이고, 그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최민갑·김상오 부부에게는 ‘평범’ 마저도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얼까, 내심 그것이 무척이나 궁금하다.

윤소수 · 이옥선 부부



가족 모두
서로 몸 편케 잘 살자

충남 홍성군 홍북면 홍천문화마을 1길 111



1942년 08월 13일(음력)
윤소수 씨 출생

1943년 2월 17일(음력)
이옥선 씨 출생

1966년 02월 21일(음력)
결혼

1968년 02월 21일(음력)
아들 윤상보 씨 출생

1969년 12월 12일(음력)
딸 윤상금 씨 출생

1972년 02월 16일(음력)
아들 윤인보 씨 출생

1974년 12월 12일(음력)
딸 윤상희 씨 출생

1994년 4월 17일(양력)
딸 윤상금 씨 결혼

1995년 2월 21일(음력)
아들 윤상보 씨 결혼

1999년 5월 1일(양력)
딸 윤상희 씨 결혼

2002년
윤소수 씨 회갑

2003년
이옥선 씨 회갑

2011년
윤소수 씨 칠순

2012년
이옥선 씨 칠순





약혼식 사진

평생 남의 머리 깎으며 어울려 사는 법 배우고 가르치며

윤소수 · 이옥선 부부 ...

“가족 몸 건강히 사는 게 전부, 마을 일에도 꼭 참여할 터”

주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 인터뷰를 한 홍천 1차 마을 최민갑 · 김상오 부부 댁에서 별로 건질 게 없어 더위가 더 사납게 느껴졌다.

두 번째 인터뷰 대상인 윤소수 · 이옥선 부부를 사전 인터뷰하고자 찾아 갔을 때, 내외는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늘마루에서 더위를 피하며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내외의 모습이 정겹기까지 하다.

“평생 이발만 해서 다른 건 잘 몰라. 몇 년 전 이발소 접고, 텃밭서 농사짓고 살고 있지, 뭐.”

“남의 머리만 깎을 줄 알았지, 내 머리는 글썄, 집사람이 깎아줄 수 있으려나…….”

윤소수 · 이옥선 부부를 영상 인터뷰하기 위해 두 번째로 찾아 갔을 때, 내외는 커피를 내오면서, 바빠 서두르는 눈치였다. “빨리 하고 끝내자”고 재촉하는 내외 모두 “모임이 있어 나가봐야 한다”며, 윤 씨는 ‘윤 씨’ 대로, 이 씨는 또 ‘이 씨’ 대로 모임이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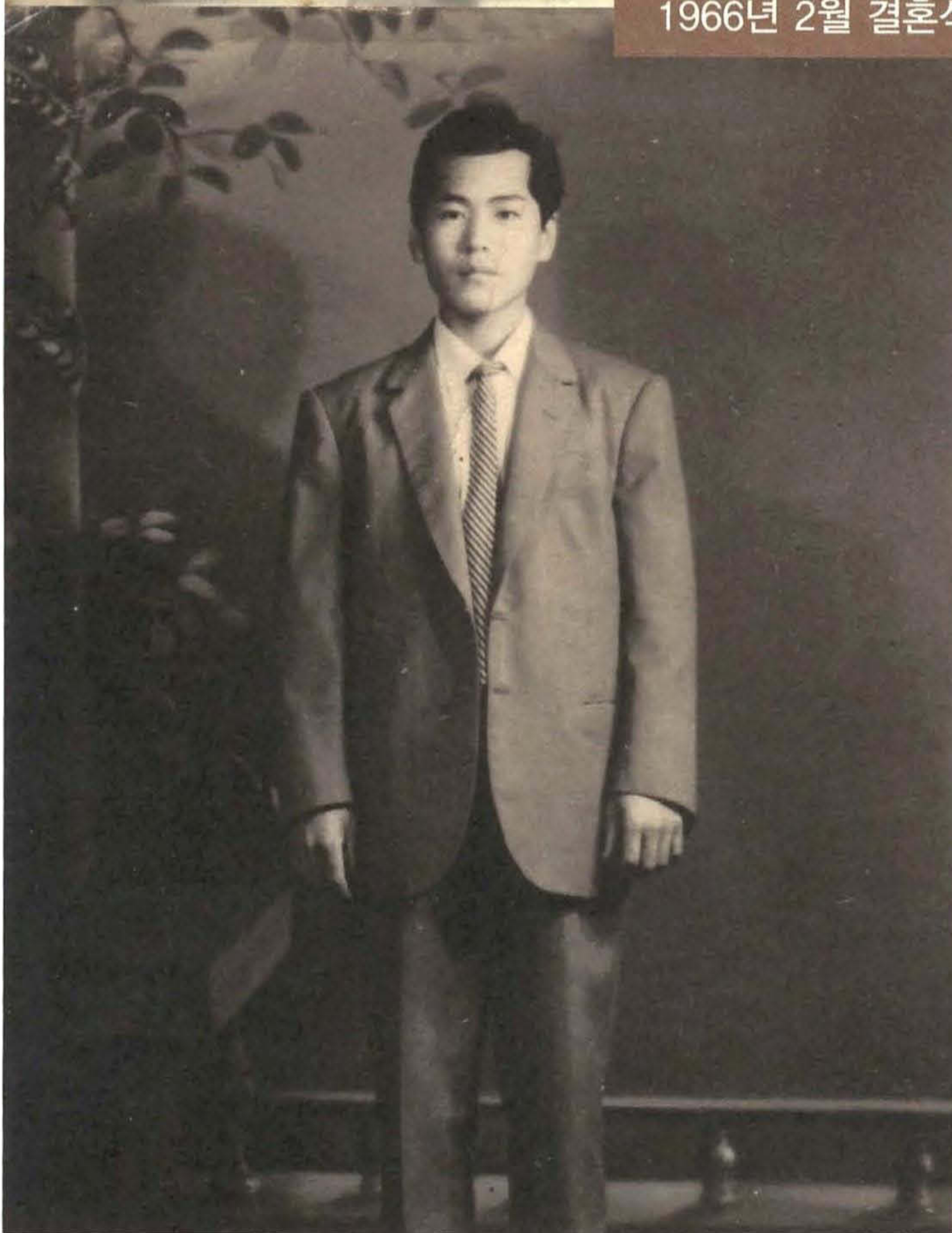
윤소수(75) 씨는 평생 이발을 해온 삶이기에, “남의 머리 깎으며 살아온 삶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옥선(74) 씨는 그 옆에서 함께 남편을 도와 일해 온 게 전부다. 그러니 ‘홍천이용원’이 내외에게는 삶의 전부인 셈이다.

아버지 대 이어 이용업 종사...평생 남의 머리 깎는 일 천직으로 여겨

윤소수 씨는 일본에서 태어났다. 3살 때 비로소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로 돌아와 정착했다. 15살 때 아버지가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에 이용원을 개업하면서, 이곳으로 이사 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때부터 윤 씨의 이발 인생도 시작된다.



1966년 2월 결혼식(위) / 21살 총각시절(아래좌) / 19살 수덕사에서(아래우)



└



- 1. 큰 아들 6학년, 웅변 대회 상 받고 이용원 앞에서
- 2. 함께해 온 이발도구
- 3. 25살 군 제대 즈음
- 4. 약혼식(시누이와 함께)



└

윤 씨 아버지는 이발 기술을 배우고자 일본 유학길에 올랐고, 이발 기술을 다 배우고 돌아와 마을에 '홍천이용원'을 개업했다. 윤 씨 또한 아버지의 격려와 더 잘하라는 꾸지람 속에서 이발 기술을 배웠다. 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윤 씨는 '홍천이용원' 대를 이으며, 남의 머리를 깎는 이용사가 되었다. 한 평생 이발을 천직으로 알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하지만 윤 씨는 나이가 들면서, 이용원 운영이 여간 벅차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도로변에 있던 '홍천이용원'이 도로 수용에 따라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발 일을 그만두고 1차 문화마을에 들어왔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노년을 편하게 보내고 싶어 이발소를 접었다"며 "지금은 눈두 어둡고, 손두 떨려 이발은 못해" 한다. '혹여 마을사람들을 상대로 이발 할 수 없겠느냐'는 우리들의 제안을 "손이 떨려 어렵지" 하며 사양했다.

자녀들 모두 자리 잡아 뿌듯하고 흐뭇해 ... 이젠 무엇보다 건강이 전부

이옥선 씨는 지금의 예산군 덕산면 내나리에서 태어났다. 이 씨는 농사짓는 집안의 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고향에서 농사짓다가 25살 나이에 윤 씨와 결혼했다. 윤 씨와는 중매로 만나 결혼하고 살면서 여태껏 2남 2녀의 어머니로 참 열심히 힘든 세월을 지내왔다.

이 씨는 결혼해서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남편을 받들며, 자녀들 잘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았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다행히도 두 분 다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 씨에게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큰 병 없이 떠나보내게 되어 안타까움은 그래도 덜하다.

이 씨는 특히, 큰 아들 윤상보(49) 씨를 의사로 만든 게 뿌듯하고 흐뭇하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이발 기술이 있어 평생 이용업에 종사했다면, 큰 아들은 어릴 적부터 공부 열심히 해 의과대학에서 의료 기술 배워 의사가 되었다. 큰 며느리도 간호사로 시작해 대학교수까지 됐으니 자식농사는 그만하면 되었다 싶다. 큰 딸 윤상금(48) 씨, 작은 딸 윤상희(43) 씨도 번듯한 남편 만나 결혼해 잘 살고 있으니, 그 또한 그만하면 되었다.

다만 둘째 아들 윤인보(45) 씨가 아직 결혼을 안 해 그게 내외 마음에 조금은 섭섭하다. 둘째 아들은 교육청에서 일하다 얼마 전부터 내포신도시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자리 잡는 데로 좋은 짝 만나 결혼하는 게 내외의 소망이다.



- 1. 가족사진
- 2. 부부가 함께
- 3. 가족사진



‘가족 모두 서로 몸 편하게 잘 살자’ 실천하고, 서로의 두터운 정^情 지키며 살아

윤소수·이옥선 부부는 ‘서로 몸 편케 잘 살자’는 말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 강원도 화천에서 이발병으로 군 복무를 할 때 윤이 좋아 ‘1·21사태(김신조 사건)’이 일어나기 전 다행스레 제대를 했다. 정말이지, 윤이 매우 좋게도 말이다.

“논밭은 조금 있지만, 텃밭 수준”이라고 내외는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텃밭이지만 손이 많이 간단다. “그래도 소일거리는 있어야지” 하며 내외는 봄에 벼 심고, 무르익는 가을에는 새벽부터 바쁘다.

이제 내외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한다. 누가 누구에게 ‘무어라’ 할 필요도 없이 평생을 함께 해온 내외에게 사랑보다도 깊은 ‘부부의 정^情’이 가득하다. 가끔 자녀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자녀들을 직접 찾아가는 일이 내외에게는 생활의 전부가 되었다.

윤소수 씨, “이응노마을 사업 꼭 성공해 살기 좋은 마을 되길 바래”

윤소수 씨는 마을 일과 지금 진행되는 마을 사업에 대해 먼저 인터뷰한 최민갑 씨와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마을이 잘 나가는 마을”이라며 “이응노마을 사업이 꼭 성공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평생 남의 머리 깎는 이발을 천직으로 알며 살아온 윤 씨에게는 남과 더불어 사는 일이 무척이나 행복하다.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내외는 두런두런 그렇게 또 정겹게도 많은 말을 나누곤 한다. 자녀들 모두 자리 잡고 이제 편히 살아가는 일만 남았으니, 내외에게 저무는 황혼이 아름답게 비추길 바랄 뿐이다.



신영학 · 김영순 부부



인생, 뭐 있나
즐겁고 재미나게 살면 되지

충남 홍성군 홍북면 홍천문화마을 2길 40-4번지

1927년 8월 15일(음력)
어머니 최기분 여사 출생

1951년 11월 9일(음력)
신영학 씨 출생

1957년 6월 9일(음력)
김영순 씨 출생

1978년 7월 11일(음력)
약혼

1980년 3월 20일(음력)
결혼

1978년 1월 16일(음력)
딸 신인하 씨 출생

1979년 3월 9일(음력)
아들 신인석 씨 출생

2006년 3월 1일
아들 신인석 씨 결혼

2010년 11월 9일
신영학 씨 회갑

2011년 10월 2일
딸 신인하 씨 결혼

2016년
김영순 씨 회갑





약혼식
78.7.11.

무주에서의 약혼식(1978년 7월 11일)

“마을 토박이나 외지 사람 모두 화합해야 웃으며 살지”

신영학 · 김영순 부부 ...

“돌고 돌아 돌아온 고향, 마을 발전 젊은 사람들 앞장서야”

신영학 · 김영순 부부는 우리가 첫 번째 사전 인터뷰를 하고자 찾아 갔을 때, 손사래를 치며 “아, 뭐, 무슨 인터뷰야! 에이 싫어”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영상 인터뷰를 하기 위해 찾아 갔을 때, 내외 모두 하고 싶은 이야기보따리를 긴 시간 풀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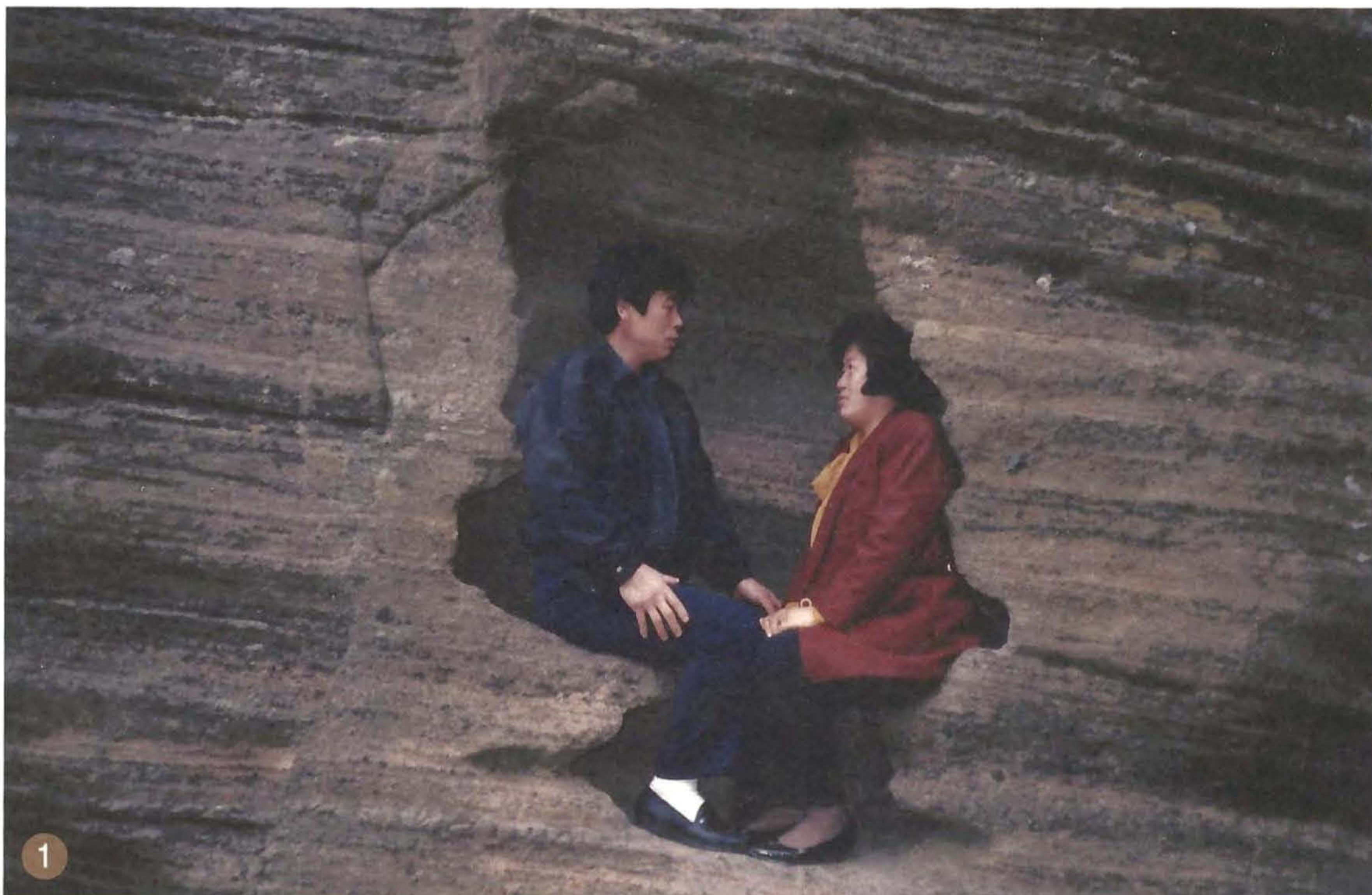
신영학(67) 씨는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 토박이다. 이 마을에서 9대째 살고 있으니 진짜 ‘토박이’라 부를 수 있다. 신영학 씨에게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잊으려고 해도 잊지 못하는 고향이다. 지금도 구순^{九旬}의 어머니 최기금(90) 여사를 모시고 산다.

타지에서 맺은 인연 ‘결혼’으로 골인... 고향 홍천마을 돌아와 부모님 모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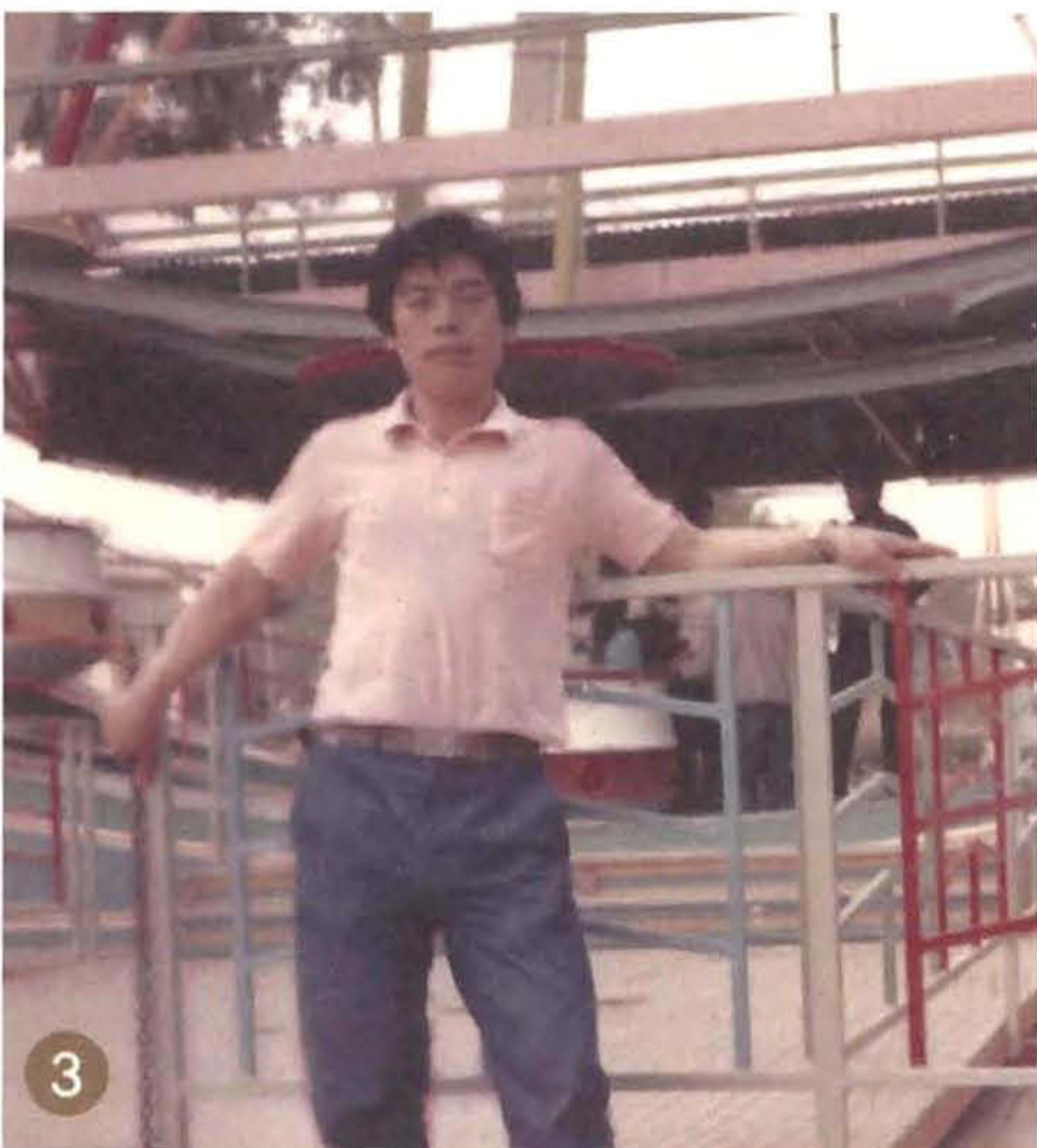
신영학 씨는 타지와 고향을 넘나들며 살았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17살 때 타지로 떠났다. 대전에 정착한 뒤 10여 년 간 아파트나 기관 건물 등에서 페인트칠 일을 하며 살았다.

신 씨는 대전에 살고 있을 당시, 중간 중간엔 장사 할 요량으로 목포, 제주 등에서 잠시 잠깐씩 살았다. 대전에서 페인트칠 일을 할 때 아내 김영순(61) 씨를 만나 결혼했다. 그때가 벌써 40여 년 전 일이다. 결혼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신 씨는 “아버님과 어머니가 시골에 살다보니 걱정이 되었고, 타지 생활도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지, 뭐” 하며 타지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 돌아온 게 다행이라 여기는 눈치다. 고향에 돌아와 농사짓다가 45살 때 홍성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무려 14년을 근무했다. 이때는 내외가 홍성읍 오관리 7구에 살았다. 그러다가 퇴직 후 고향인 홍천마을로 다시 돌아왔다.



1. 40대에 제주도 가서(이일친목계에서)
2. 중국 여행-장가계 1(2016년 7월 12일)
3. 중동 리베아 현장에서(1988년)
4. 21살 때 무주 남산에서 친구들과 함께(1977년 3월)



평생 웨딩드레스 입는 꿈... 입을 기회 있었지만, 쑥스러워 끝내 입지 못해

김영순 씨는 전라북도 무주군이 고향이지만, 이젠 홍천마을이 더 고향처럼 느껴진다. 시집와서 더 오래 산 곳이 이곳이니 고향이라 부를 수밖에. 김 씨는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는 극구 사양한다. 그러면서, 멧쩍은 웃음만 짓는다. “결혼이라고 해야 뭐 예식장도 웨딩드레스도 입어보질 못해서 이야기하기 뭐 좀, 그래” 하자, 신 씨는 아내에게 미안함을 감추지 못한다.

김 씨가 대신 “시아버님 환갑 때 그냥 집에서 전통혼례로 했어. 그래서 얼마 전 홍성군 합동결혼식 때 웨딩드레스 입고 다시 한 번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쑥스러워 안 하고 말았지” 하며 아쉬운 속내를 드러낸다.

젊은 시절 타지에서 열심히 일한 뒤, 지금은 소일거리 삼아 농사짓고 있어

신영학 씨는 타지 생활과 홍성읍 환경미화원 시절, 밤낮이 바뀌는 생활이 하다 보니 온통 사는 게 뒤죽박죽이고, 거기에다가 술도 많이 마셔 지금은 몸이 아파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한다.

신 씨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한 뒤, 지금은 그저 소일거리 삼아 이응노의 집 연밭 아래 논 몇 마지기 짓고 있어”라고 말한다. “홍성군에서 연밭을 넓히려고 우리 논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빨리 매입해야지, 허허” 하며 웃는다.

신영학·김영순 부부는 올해 김 씨의 회갑을 맞아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 요즘 회갑은 예전처럼 축하연이나 마을 잔치도 생략하고, 가족이 함께 오붓하게 모여 식사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내외는 오붓하게 둘만의 추억을 만들며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

남편 신영학 씨와의 운명적 만남 ...

남매 두고 거기에다 손주 보는 재미 '쏙쏙'

김영순 씨는 신 씨를 만난 게 운명적이다. 무주에서 홍성 남자를 만난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신 씨가 “대전 동구 인동에 살 때였지” 하자, 김 씨는 “친구 선보는데 따라 왔다가 올케 이모님의 소개로 이 사람을 만났지. 요즘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운명적이었어. 그땐 이 사람 뭐가 좋았는지, 바로 이 마을에 와서 전통혼례를 결혼했지, 뭐” 하며 수줍게 웃는다.



결혼식



- 1. 아들 딸과 함께 (부천 원미동 잔치집에 가서)
- 2. 아들 결혼식
- 3. 시어머님 회갑때



내외는 딸 신인하(39) 씨와 아들 신인석(38) 씨 이렇게 단출 하게 남매를 뒀다. 모두 장성해 딸은 홍성읍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한다. 사위도 예산군 웅봉면에서 싱크대 가게와 과수원을 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외손주는 남매를 뒀다. 아들은 내포신도시 아파트에 산다. 한라건설에 근무하고 있다. 며느리는 광천어린이집에 다닌다. 손녀만 셋을 뒀다.

김 씨의 요즘 즐거움은 가까이 사는 아들과 딸을 보러 다니는 재미다. 손주들도 자주 시골집에 와 며칠씩 머물기도 한다. 특별한 일이 없는 내외에게는 요즘처럼 사는 재미가 쏠쏠 할 때 언제인가 싶다.

홍천마을, 예전 같지 않은 인심 ... 젊은 사람들 앞서서 마을 생각하고 발전 시켜야

신영학 씨가 말하는 고향은 예전엔 딸기와 담배농사를 많이 짓고, 인심도 무척이나 좋았다. 그러다가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이 생기고, 마을 사람들이 농사짓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인심도 예전 같지 않게 딱딱해져 몹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아졌다.

신 씨는 “예전 농사 질 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식사 대접을 할 정도로 인심이 좋았어. 그러다가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생활 패턴도 바뀌고, 인심도 예전만 못해” 하며 “거기에 외지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서 토박이와 화합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걱정이야” 한다.

신 씨는 다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마을을 생각하고 마을이 발전시켜야 하지. 그리고 토박이나 외지 사람 모두 한 마음 같이 지내야 마을의 화합도 이룰 수 있어” 하며 허허 웃는다..

신영학 · 김영순 부부는 “인생 뭐 있나, 즐겁고 재미있게 살면 되지” 하며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고 재미있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 하며 다시 한 번 허허허 웃는다.



한충식 · 김봉자 부부



사랑과 믿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

충남 홍성군 홍북면 문화마을 1길 이응도로 035-92



1948년 10월 16일(음력)
한충식 씨 출생

1954년 11월 16일(음력)
김봉자 씨 출생

1978년 4월 2일(음력)
결혼

1979년 1월 8일(음력)
아들 한재광 씨 출생

1980년 7월 9일(음력)
딸 한미예 씨 출생

2007년 1월 20일
딸 한미예 씨 결혼

2008년
한충식 씨 회갑

2014년
김봉자 씨 회갑





시아버지 환갑때 이응노화백 건너편에서

“마을 사람들 모두 함께 사랑·믿음 넘쳐나야 좋은 마을”

한충식·김봉자 부부 ...

“마을 젊은 사람들이 뛰어다녀야 마을이 잘 살 수 있지, 안 그래”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는 9월 말 어느 저녁, 어두컴컴한 시골길에서 직장에 다니는 김봉자(63) 씨를 기다렸다. 김 씨는 1년 간 홍성천 복개주차장·하상주차장에서 일하고, 다시 1년 간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에서 일한다. 기다리던 중 마침내 김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다. 저녁 7시 무렵인데 길은 컴컴한 칠흑 같은 어둠이다.

한충식(69) 씨는 홍천 2차 마을노인회관에서 바빠 오는 중이란다. 현 양주명 이장 전에 이장을 맡아 마을 일을 해온 한 씨가 집에 도착하면서, 첫 번째 사전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며칠 뒤 두 번째 영상 인터뷰도 마을회의에 바쁜 한 씨를 한참이나 기다리다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충식·김봉자 부부 댁은 한창 고추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내외가 나란히 소파에 앉는다. 사랑과 믿음으로 맺은 내외이기에 농사일도 하면서, 직장에 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가장 어려울 때 이장 맡아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 해결해 '뿌듯'

한충식 씨는 홍성군 홍북면 홍천마을 토박이다. 어릴 적부터 농사짓고 사는 게 천직으로 알았다. 한 번도 떠나 본 일 없는 마을이었기에 나이가 들고 마을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레 이장을 맡게 되었다. 이승호 이장에 이어 1999년부터 6년 간 이장을 맡았다.

한 씨가 이장을 맡아 마을 일을 할 때, 홍성군위생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섰다. 마을에서는 설치를 반대하는 항의를 했다. 그리고 마을에서, 홍성군청 앞에서 시위도 많이 했다. 이장을 맡은 한 씨에게는 이때가 가장 혹독한 시절이었다.

한 씨는 “홍성경찰서 형사가 늘 쫓아다니며, 주민들 설득하라고 매일 협박을 해왔어. 그 때는 고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하며 당시를 떠올리고 다시 한 번 몸서리를 쳤다. 한 씨는 “그래도 주민들 설득하고 잘 해결되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금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아 ‘불행 중 다행’이라며 애써 웃는다.



딸기·담배 농사로 인심 좋았던 홍천마을 ... 농사 안 짓다보니 인심도 야박해져

평생 농사짓고 산 한충식 씨는 농한기에는 건축 미장일을 하며 살았다. 벼 농사는 물론 고추, 땅콩, 들깨 등 논·밭을 일구며 열심히 농사짓고 살았다. 예전 딸기, 담배 농사는 홍천마을이 제일 먼저 시작하였다. 홍성 딸기의 80%를 홍천마을에서 재배하고 수확했으니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러다가 홍천마을의 딸기 농사는 용봉산 아래 하산마을로 옮겨졌다. 요즘 마을은 딸기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게 다 생활이 바뀌어 그런 것”이라는 한 씨의 말이다.

한 씨는 “홍천마을은 물이 적고 주민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딸기 농사를 접는 가구가 많아졌다. 지금 마을에서는 두세 가구만 딸기 농사를 하고 있다”며 “딸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마을 인심도 야박해졌다”고 아쉬워했다.

도시 여자의 시골 생활, 도망가고 싶었지만 ... 지금은 자녀 키우며 사랑·믿음 실천

김봉자 씨는 여느 마을 사람들보다 부지런하다. 논·밭농사는 물론 직장까지 다니고 있다. 오토바이로 출퇴근 하는 통에 사고와 추위가 한 씨에게는 걱정이다.

김 씨 고향은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 안양시이다. 그런 김 씨가 남편을 만난 것은 시어머니 조카딸의 중매로 인연을 맺었다. 안양성결교회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했다. 신혼여행은 촌스럽게도 멀리 가지 못하고 수덕사에 다녀왔다.

김 씨는 “시골에 어떤 곳인지 모르고 시집와서 처음엔 너무 놀라 도망 갈 뻔했다”며 “안양에서 공장에 다녔는데, 시골로 시집오니 농사일이 정말 힘들었어”라고 말한다. 김 씨는 도망가려는 마음을 힘겹게 접고, 홍천마을에서의 생활을 수십 년째 이어가고 있다. 거기에는 아들 한재광(38) 씨와 딸 한미예(37) 씨를 낳고 기르면서, 삶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1. 안양 성결교회에서의 결혼식(1978년 4월 2일)
2. 아들 딸이 집 옆에서 키우던 강아지와 함께
(1988년 8월)
3. 결혼 후 과수원에서(1980년)



딸 한미에 씨는 어머니처럼 교회와 인연 속에 수원은혜교회 부목사와 결혼하였다. 손주는 2남 1녀를 두었다. “사위와 딸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하며 김 씨는 미소를 짓는다.

아들 한재광 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일하다가 1년 전 홍성 세림산업으로 직장을 옮겼다. 김 씨는 “착실한 성격으로 직장 생활도 성실하다”며 두둔한다. 다만 부모의 마음은 아직 결혼을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아들만 결혼하면 한 시름 놓겠다”며 한 씨는 말한다.

마을 발전, 무엇보다 ‘화합’ ...

“마을 사람들 모두 이기심 버려야 잘 살 수 있어”

한충식 씨는 홍천마을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토박이와 외지 사람들의 ‘화합’ 이다. “마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건 알지만, 무엇보다 토박이와 외지 사람들 간 화합이 중요하다”며 “항상 마을 사람들이 화합하며 지내야 마을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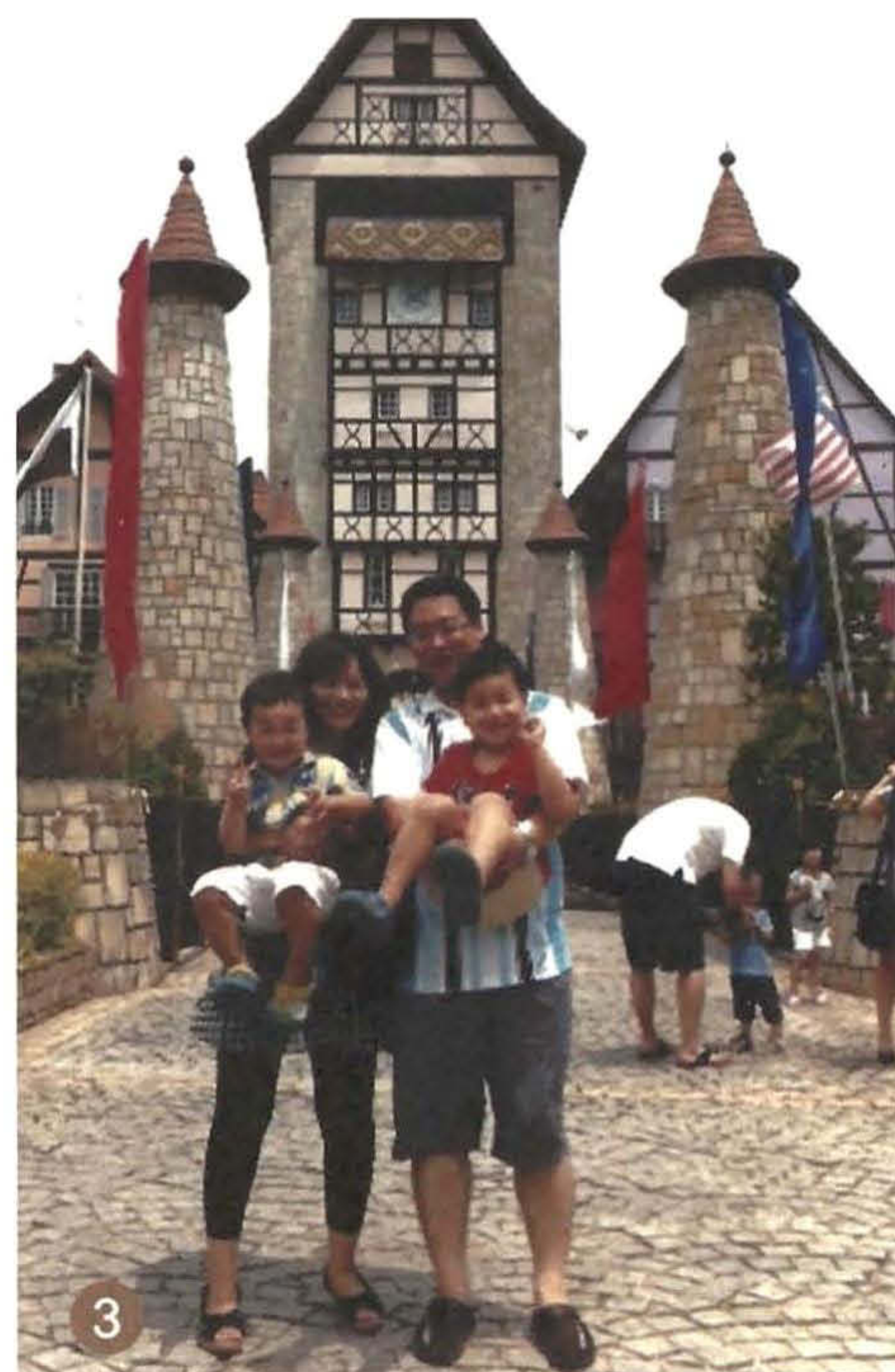
이응노의 집과 이응노마을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예술 공간 구축에 대해서 한 씨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쉽지만은 않다. 결정적일 때 마을 사람들의 이기심이 모든 걸 망친다”며 “차근차근 마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언제까지나 이곳 홍천마을에서 살겠다는 한충식·김봉자 부부는 “마을 노인들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마을 일을 하기 어렵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뛰어다녀야 마을이 살 수 있다”며 “마을 사람들 모두 사랑과 믿음이 넘쳐나야 좋은 마을”이라고 다시 한 번 마을 발전을 강조한다.





1. 안양친정에서 아들 6살 때 금명여자상업고등학교 앞에서
2. 임신하고 시누이가 놀러와 살던 집 앞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누이 남편, 시누이들 조카딸과
함께 1978년 가을)
3. 딸 가족(2012 말레이시아에서)



정동규 · 장순희 부부



근심 걱정 없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충남 홍성군 홍북면 홍천문화마을 2길 40-16

1944년 10월 12일(음력)

정동규 씨 출생

1952년 3월 3일(음력)

장순희 씨 출생

1975년 12월 9일(음력)

결혼

1977년 10월 15일(음력)

딸 정미라 씨 출생

1981년 7월 22일(음력)

딸 정미진 씨 출생

1983년 3월 29일

아들 정석환 씨 출생

1996년 11월 23일

딸 정미라 씨 결혼

2005년

정동규 씨 회갑

2012년

장순희 씨 회갑

2014년 7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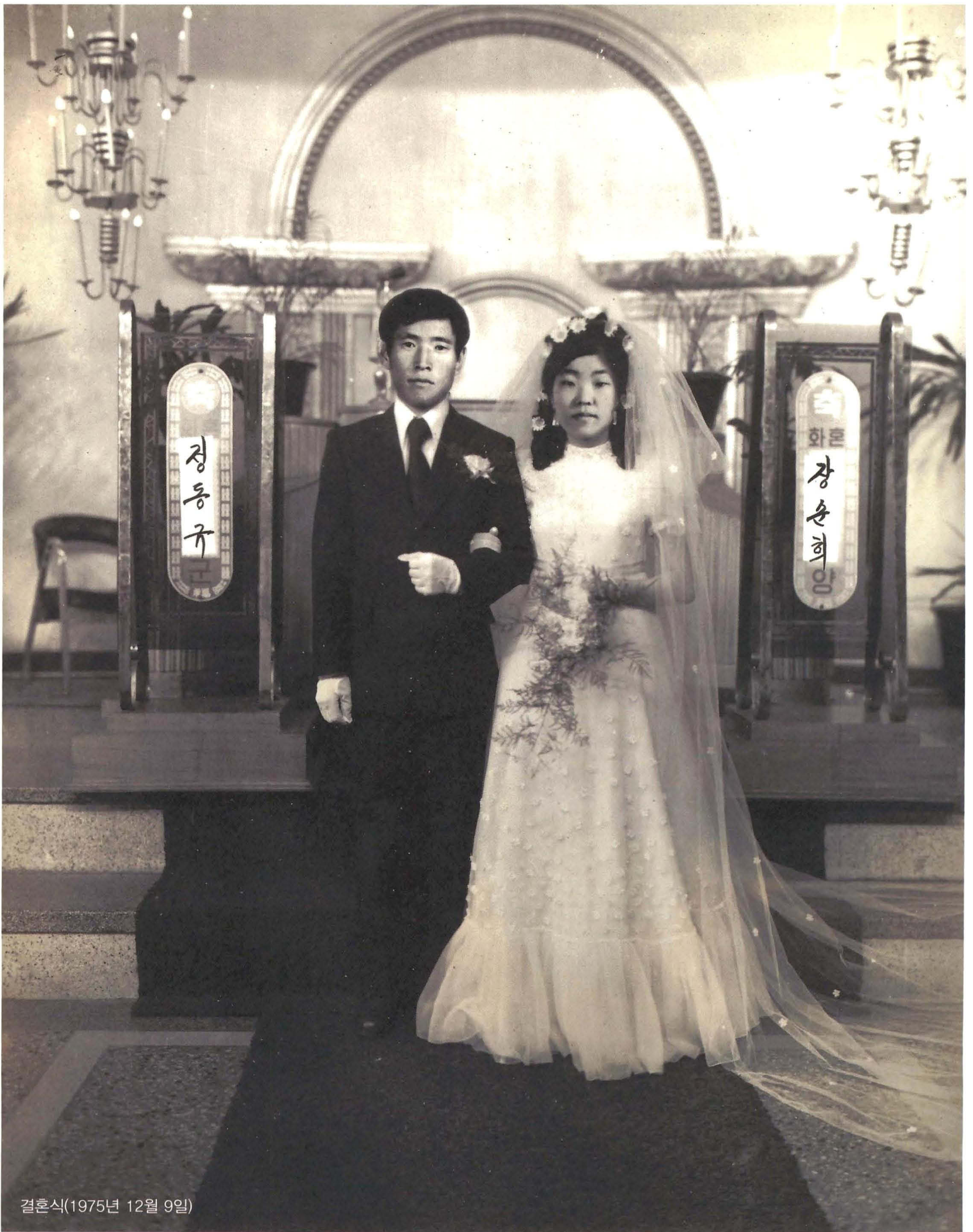
딸 정미진 씨 결혼

2015년

정동규 씨 칠순



16살 때 잊지 못할 직장 친구들과 함께(1970년 6월 15일)
인천중앙도자기 근무



결혼식(1975년 12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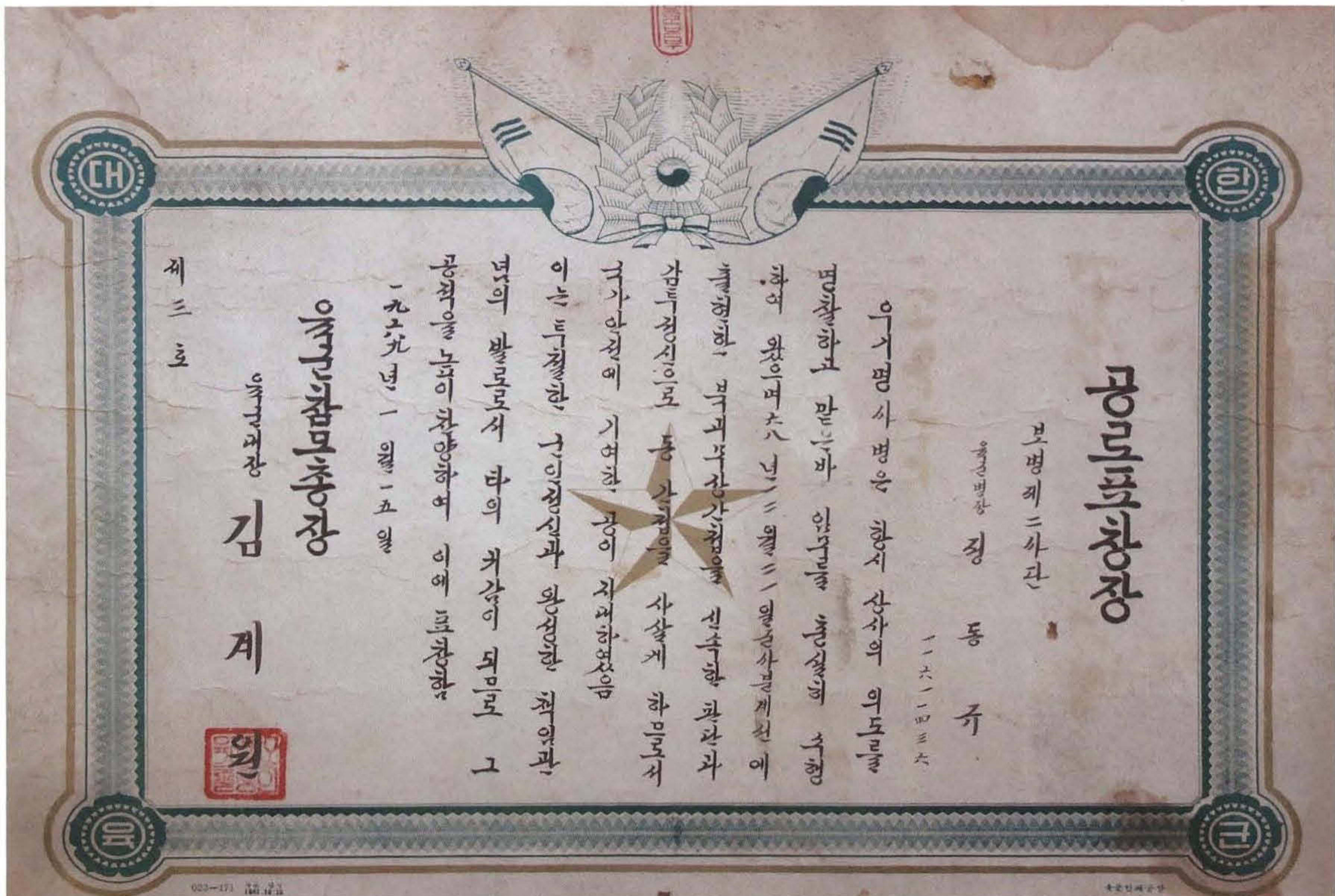
“생전 처음 우리 명의로 땅 가진 게 가장 기쁘고 보람돼”

정동규 · 장순희 부부 ...

“바쁜 생활로 마을 행사엔 참여 못해, 앞으로 적극 참여할 터”

정동규(72) 씨는 홍성군 홍북면 홍천마을에서 태어났다. 홍천마을에서 평생
을 산 토박이다. 홍천마을복지회관(현재 이응노마을회관) 건너편에 살았다.
아내인 장순희(65) 씨는 지금의 서산시 고북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서산
팔봉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정동규 · 장순희 부부는 인터뷰 일정이 늦어진 관계로, 사전 인터뷰는 건너
뛰고 바로 영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한 5쌍의 부부 가운데
누구보다도 가장 친절하게 우리가 맞아주었다. 덕분에 인터뷰는 술술 잘 진
행되었다. 정 씨는 처음엔 어색해 하다가 이내 군대 시절 무용담을 털어놓
으면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공비 사살로 육군대장표창을 받았다(1968년 10월 30일)

평생 농사짓다가 군 입대 ...

무장공비 사살 포상으로 육군대장표창 받아 '으쓱'

정동규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15살 때부터 논, 밭농사를 지었다. 밭에는 예전 홍천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배, 딸기농사를 지었다. 지금은 밭농사는 접고 논농사만 조금 남았다. 정 씨는 이젠 힘들어 농사짓기도 벅차 단다.

정 씨는 “평생 농사짓는 게 지겹기도 하지. 하지만 별 수 있나. 농사가 천직이니 평생 농사짓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지, 뭐” 하며 웃음 짓는다.

정 씨는 평생 농사만 짓다가 입영 통지를 받고 강원도 인제 보병 2사단에 입대하였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었던 1960년대 후반이었다. 군 제대를 얼마 앞두고 육군대장표창을 받았다. 그게 지금까지도 가장 내세울만한 정 씨의 자랑거리다.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울진·삼척에 무장공비가 침투할 때, 정 씨도 토벌 작전에 투입되었다. 지금도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남북한 분단의 아픔이었다. 당시 이승복 어린이가 무장공비에 의해 희생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쳤다는 웃지도 못할 비극의 그 사건이었다.

정 씨는 이때, 제대를 앞두고 무장공비 토벌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그 토벌 작전에서 무장공비 1명을 사살, 훈장포상 명단에 포함되었다. 정 씨는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부대 중사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육군대장표창을 받는 것으로 쓰린 속을 달래야 했다. 정 씨는 “그때 부대장이 자꾸 중사에게 양보하라고 해서 그 성화에 못 이겨 양보하고 말았지” 하며 아쉬운 속내를 드러낸다. 그래도 낡은 육군대장표창장이 아직도 정 씨에겐 소중한다.



객지 생활하다 중매로 결혼... 강원도 춘천 땅 매입한 게 가장 기쁘고 보람돼

장순희 씨는 서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인천으로 상경해 몇 년간 도자기 만드는 공장에 다녔다. 객지에서 생활하다 당시 홍북면 상하리에 살고 있던 언니 집에 다니러왔다. 이때, 언니의 중매로 정 씨를 만나 결혼했다. 시아버지와 언니네 옆집이 잘 아는 사이로 평생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전통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때부터 장 씨는 홍천마을에서 농사를 지었다. 자녀는 1남 2녀를 두었다. 첫째 딸 정미라(40) 씨는 통나무 대목장인 남편을 만나 지금은 강원도 춘천 시에서 산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직장엔 다니지 않고 가정주부로 산다. 자녀는 1남 1녀를 두었다. 덕분에 내외는 춘천 쪽에 2만6000평의 땅을 올해 7월에 매입할 수 있었다.

장 씨는 “춘천에 사는 딸과 함께 땅을 매입했을 때, 우리 명의로 이제야 땅이 생겨 든든하다”며 “이때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 있었다”고 말한다. 한 마디 덧붙여 “여기선 땅이 없어 한이 되었는데 이렇게 땅을 사두었으니 뿌듯하다”고 웃음이 번진다.

정동규 씨, “사는 게 뭐니뭐니해도 자녀들 걱정 덜고 부부가 건강할 때 아녀”

둘째 딸 정미진(36) 씨는 잘 살고 있다. 보령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남편을 만나 사내아이 하나 두고 잘 사니 부모 마음은 이거면 되었다 싶다. 아들 정석환(34) 씨는 탐차 운전을 하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다. 아직 미혼으로 내외는 아들이 빨리 자리를 잡고 결혼도 했으면 싶다.

정 씨는 2005년 회갑 때 동네잔치를 했다. 칠순 때는 가족이 모두 모여 도란도란 식사를 했다. “요즘엔 뭐 칠순이라고 해도 특별할 게 있나” 하며 웃는다. 장 씨 회갑 때에는 내외가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다.



대천해수욕장에서 가족이 함께(2006년)



수덕사에서 아들과 큰 손자와 함께(2006년)

직장 다니느라 마을 행사엔 참석 못해 아쉬워 ...
 “앞으로 마을 행사 등 적극 참여” 약속

정동규 씨는 2014~2015년 2년 간 홍성천 복개·하상주차장에서 일하다 올해는 잠시 쉬고 있다. 대신 장순희 씨가 여기저기 부지런히 일을 다닌다. “평일에는 일 다니니 주말밖에 시간이 없어 마을에서 하는 행사엔 일절 참석하지 못한다”는 장 씨는 이응노마을 사업 주민 선진지 견학엔 한 번도 가지 못해 아쉽다고 한다. “10월 23일 선진지 견학 때는 꼭 참석하겠다”고 한다.

정 씨는 지금의 마을과 마을 사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야지. 우리처럼 늙은 사람들이 간섭하면 안 돼”라며 미소를 짓는다. 그래도 “마을 행사는 날짜만 알려준다면 꼭 참석하겠다”고 한다. 이번 11월 12일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에도 꼭 참석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





1. 20년 전 남당항에서
2. 부곡하와이 놀러가서(1986년 11월 30일)
3. 아들 6살때 친정집에서
4. 친정아버지 생신 때(친정엄마, 친정 작은엄마, 둘째 언니와 함께)





2016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응노마을 '별의별' 두 번째 이야기]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

2016.11.12.~2016.11.18.

본 도서는 2016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홍성군의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주관처에게 있습니다.

발행인

모영선, 윤후영, 전상진

발행일

2016. 11. 12

발행처

홍성생태학교 나무 www.econamu.com

주소 | 32222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43번길 49

전화 | 041-635-9101

팩스 | 041-635-9105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홍성군

주관

이응노마을 거버넌스운영위원회, 홍성생태학교 나무

기획총괄

모영선, 윤후영, 전상진

편집·취재

전상진

기획운영

김두홍

영상

노보성, 조치연, 고현진, 강다민, 이건용

도록제작

(주)공감

주소 32244 충남 홍성군 대학길 25

전화 | 041-631-1997

팩스 | 041-631-1996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조창희

디자인·편집 | 김지혜

출력·인쇄 | (주)대진종합인쇄



“이응노마을, 고암^{顧菴} 이응노^{李應魯}에 말을 걸다”